

광주·전남 경제 살리기 7 키워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해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광주·전남 지역도 힘겨운 한해를 맞을 우려가 높다. 특히 고유가, 수입농산물 가격상승, 환율과 소비심리 하락 등 국내외의 열악한 경제변수들은 올 한해에도 지역경제를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 활로를 찾기 위한 키워드로 일자리 창출, 건설경기 활성화 등 7개 이슈를 선정, 향후 전망과 방안을 모색해본다. /이종태 기자 jilee@kwangju.co.kr

청년실업 전국 최고...일자리 늘리자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최근 10년간 300만 이상 기업이 매년 감소하는 등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다. 일자리 부족은 청년층의 실업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광주의 청년실업(15~29세)률은 11.2%에 달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기업 스스로 고용확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맞춤형 교육, 효율적인 인턴사원제 등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하고 인재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기업에 대한 이미지, 작업환경, 복지 개선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지역경제 희망 '주력산업' 육성하자

광주시와 전남도의 주력산업은 먹거리 또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광주시의 경우 관광업을 비롯해 가전산업, 자동차산업을 육성해 오는 2010년까지 31조원 매출과 8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 역시 조선·신소재산업, 생물관업, 물류산업, 문화관광산업 등 4대 전략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노사화합, 전문인력 양성,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한 판로확보, 지속적인 R&D(연구개발) 투자, 외부 기업·자본 유치 등에 관한 체계적인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실천해야 위기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

특히 조선산업은 생산액은 물론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와 고용창출 등에서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업체가 대부분이어서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획기적인 인력수급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지역 건설업 위기...부양책 세우자

광주·전남지역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높다. 구조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경기가 위축될 경우 해당 업체는 물론 생산과 소비·고용 등 지역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 광주·전남의 건설경기는 사상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지방의 부동산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미분양 주택이 폭증하고, 건설업체가 줄도산하는 등 고사 위기로 내몰린 것이다. 실제 광주의 경우 미분

양이 1만가구에 달했으며, 건설업체의 부도는 올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역 건설업계가 궁지로 몰린 것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전반적인 '일감'이 크게 줄어든 데다 주택건설업체의 경우 미분양 사태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건설경기 부양책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충 등을 통한 건설물량 확보, 지방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혁신도시 건설 등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한다.

특히 주택시장의 경우 지방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게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침체에 빠진 지방시장에도 수도권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중추인 건설경기가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경제 디딤돌 '연구개발'에 힘 쏟자

광주·전남지역의 연구개발(R&D) 수준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연구개발조직은 전국의 3.6%, 연구개발인력은 2.0%, 연구개발비 2.1%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지적재산권 등록 비중도 전국

의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야말로 기업이나 지역경제를 살리는 굳건한 디딤돌이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끊임없이 창출해야 개방경쟁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문화산업 육성 원년으로 삼자

지난해 문화정책개발원이 펴낸 '국민문화지수 개발 보고서'를 보면 광주가 '문학·예술·대중문화 부문' 1위, '사회문화·여가활동 부문' 2위를 차지해 문화활동이 전국에서 가장 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와 예술이라는 아이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분야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국책사업인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와 관련, 올해를 문화산업 육성 원년으로 삼아 뒤쳐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집적효과를 위한 연구기관 유치, 전문인력 양성에 시급하다. 이를 통해 영화·애니메이션·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나서야 한다.

FTA 파고 '친환경농업'으로 넘자

올해에는 한미FTA 체결로 지역농업의 어려움이

가증될 전망이다. 개방과고는 양(量) 위주에서 질(質)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전국 쌀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의 경우 친환경 농업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상품차별화를 통한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는 농가를 늘리는데 앞장서야 한다.

또 생산·가공·유통의 전 부문에 걸쳐 산학관 협력체제를 강화, 농업인의 경영능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농정도 변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 개발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단을 적극 육성해 지역농업의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대형할인점·재래시장 함께 살자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영업중인 대형 할인점은 무려 21개에 달했다. 광주의 경우 15개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토박이 할인업체가 붕괴되고, 골목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이 위축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다.

외부 할인업체와 토박이 업체, 할인점과 재래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 제한, 재래시장의 현대화 작업 등이 시급하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과 광주신세계백화점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중소기업 제품 판매협약'은 판매난에 시달려온 중소기업들에 숨통을 터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남중기청과 광주신세계 직원들이 지난해 광주신세계에서 열린 '지역 우수중기제품 특판전'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혁신형 中企 5년간 5만개로 늘린다

■ 새 정부 中企·농기업 육성 방안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 가운데 중소기업 활성화와 농기업 육성방안을 밝혀, 정리한다.

▲중소기업 활성화=현재 2만여개에 못 미치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향후 5년 동안 5만개로 늘려 연간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전체 기업 가운데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을 고려할 때 벤처기업·이노비즈 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육성계획은 지역발전은 물론 전국 최

고 수준인 청년실업 해소에도 적지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구매제도를 현행 58조원에서 100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 전용 흡수용 채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중소기업의 상품 판매를 지원한다. 13~25% 달하는 중소기업 법인세를 10~20%로 대폭 낮추는 방안,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 정·규직 인건비 증가액의 5% 세액공제 등도 추진된다.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R

&D) 지원을 현행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증액한다는 공약도 관심거리다.

▲농기업 육성=연매출 1조원 이상의 수출 농기업을 10개 이상 육성하고 연매출 1천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기반형 농기업을 100개 육성, 농업부문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농민들은 농지를, 농협은 농민에 대한 채권 등을 출자하는 등 농기업이 농촌 중심으로 설립·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농민들의 소득향상 및 일자리 창출, 부채 해소가 함께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대기업·中企·지자체 상생 프로젝트 가동을"



강영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중국·동남아 등의 노동 집약적 경쟁제품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국내의 시장을 잠식함으로써 입지가 위축되는 상황이다.

또 각종 규제가 철폐, 완화돼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급속한 기술개발과 소비자 욕구의 세분화·다양화·고급화 등으로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조업의 98%를 점유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은 구조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특히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협력

업체라는 틀에 얽매어 있어 대기업의 입김을 배제할 수 없다.

일례로 지난해 삼성광주전자의 생활가전 축소발언,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라인 해외이전과 노사갈등은 협력업체들의 존립기반은 물론 광주경제를 뿌리째 흔들었다.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 스스로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차별화된 기술개발과 함께 자체브랜드 상품개발에 앞장서고, 국내외 시장개척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기술이나 상품개발에는 중소기업 자체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하나 연구기관, 지자체, 정부 등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효율적인 대·중소기업 협력프로젝트를 통한 상생, 중소기업 제품 국내외 판로확보, 전문·생산인력 지원 등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지속적인 감독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08 새해복

미용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광주 성형외과개원의 협의회

美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저희 회원들과 노력은 세세에도 계속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원익 성형외과 #304-1171	원시호 성형외과 #222-0022	최원형 성형외과 #225-2575
김원익 성형외과 #222-1177	공복기 성형외과 #222-2100	최석현 성형외과 #225-0600
류동수 성형외과 #224-0700	세 권 성형외과 #222-9100	김도성 성형외과 #225-7000
이동진 성형외과 #222-0075	신재계 성형외과 #222-1114	김중우 성형외과 #222-1175
최대일 성형외과 #222-1257	오형관 성형외과 #222-0001	김대중 성형외과 #222-0600
박동문 성형외과 #222-3300	SM 박 성형외과 #222-1114	김경식 성형외과 #222-3777
박 라 성형외과 #224-7300	J조한 성형외과 #225-0110	